



2017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가 9일 새만금의 도시 군산에서 그 성대한 막을 올린다.

# 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 국제 교류의 장 된다

### 하프코스·국제여자부 신설... 외국선수단 11명·미8전투비행단 장병 58명 참가

2017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가 9일 새만금의 도시 군산에서 그 성대한 막을 올린다.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는 지난 2012년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으로부터 국제 공인 코스로 인증을 받은 이후 대한민국 대표 마라톤대회로 성장해 왔으며 올해는 하프코스과 국제여자부를 신설하여 기존의 풀코스, 10km, 5km 종목과 함께 군산의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근대 문화유산 거리와 주요 관광명소를 달리게 된다.

이번 대회에는 군산시의 중국 자매도시인 산둥성 옌타이시 소재 투둥대학의 9명의 선수단과 작년부터 대회에 참가해온 일본 가가와현 다카마쓰시의 한일교류협회,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 육상경기협회 등 총 11명의 외국선수단이 참가한다. 특히 투둥대학 선수단은 학생을 주축으로 꾸려져 7일에 입국, 군산과 서울투어 및 마라톤대회를 마치고 오는 11일 출국할 예정이며 미요시 겐이치 가가와현

한일교류협회 사무국장을 비롯한 일본 선수단도 7일 인천공항에 입국해 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와 군산, 전주투어를 마친 후 오는 10일 출국하게 된다. 또한 매년 참가해왔던 미8전투비행단에서도 장병 58명이 대거 참가하여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의 열기를 한층 뜨겁게 할 것으로 보인다.

시에서는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중국과 일본 등 해외 교류도시 선수단과 주한미군 장병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여 군산의 아름다운 봄을 즐기며

맘껏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각 언어별 통역 자원봉사자를 배치한 해외선수단 부스를 운영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

한편 군산시는 중국 13개 도시와 자매우호 교류를 맺어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 다카마쓰 시와는 2015년 교류의 불꽃을 트고 지난 1월 제1회 한일아동미술교류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적극적인 교류의 싹을 틔워 주고 있다. /군산=김필곤 기자

## 군산시 중앙동 '청렴거울' 배포

군산시 중앙동주민센터는 최근 청렴하고 친절한 중앙동의 이미지 확립을 위해 '청렴거울'을 제작, 전 직원에게 배포했다.

중앙동에서 제작한 청렴거울은 탁상용 거울에 '청렴한 세상 우리 같이 만들어가요'라는 문구를 기재한 청렴스티커와 자신만의 청렴의지를 다질 수 있는 청렴과우명이 부착돼 있다.

청렴 거울을 통해 매순간 자신을 돌아보면서 청렴하고 친절한 마음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자신만의 공직생활을 다짐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동장은 "작은 실천이 자신과 조직을 바꿔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다양한 청렴시책을 시행하여 직원들이 청렴을 항상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필곤 기자

## 정헌율 익산시장 '일진머티리얼' 추가 투자 요청

### 일진그룹 허진규 회장과 환담 가져

정헌율 익산시장은 6일 오전 서울 일진그룹 본사를 방문해 허진규 회장과 면담하고 제3산단에 입주한 일진머티리얼(주)의 조속한 추가 투자를 요청했다.

이날 정 시장은 어려운 국내의 경제 여건으로 일진머티리얼즈의 추가 투자가 늦춰지고 있는 가운데 작년에 영업흑자를 달성하고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전망됨에 따라 익산 산업단지 내 투자 확대를 독려하고, 향후 사업전망과 기업 경영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헌율 시장은 "오랜 역사와 도전정

신으로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일진머티리얼즈가 조속한 추가 투자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익산시에서도 힘과 지혜를 모아 일진그룹이 밝은 미래를 열어가길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과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익산 산업단지 내 추가 투자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익산 팔봉공장과 삼기공장을 가동중인 일진머티리얼즈(주)는 1987년 익산 팔봉동에서 '덕산금속'으로 출발했다. 전자제품의 필수 부품인

쇄회로기판(PCB, Printed Circuit Board) 등에 적용되는 '일렉포일(Electro,동박)'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국내 1위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2차전지용 특수 일렉포일(2B)에서 세계 1위를 점유하고 있는 독보적인 기업으로, 전기차, ESS 등 중대형 2차전지 수요 증가 추세에 따라 급격한 성장 이 기대된다.

또한, 2차전지의 핵심소재로서 전지 전해 재료비의 30~40%를 차지하는 고부가가치 제품인 양극(+)극활물질 생산,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향후 고용량·고출력이 요구되는 2차전지 산업의 성장과 함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 익산시, 청년농업인농담토크 개최

익산시는 6일 농업인회관에서 농업여건의 현실적인 애로사항 해소와 미래 농업·농촌을 고민하며 꿈을 키우고 있는 40세이하 젊은 농부 30여명과 '청년농업인 농담(農談)토크'를 했다.

이번 농담토크는 익산시가 미래농정국을 신실하고 농업인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미래농정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업인의 의견을 듣고 농정 거버넌스 강화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익산시 미래농정에 대한 설명과 청년농업인의 성공사례와 미래발전에 대한 특강, 스마트팜 소개 및 실용화 전략에 대한 강연, 젊은 농부의 농업에 대한 고민사항을 듣는 농담토크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농업인들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농지구입 자금 2억원이 융자형태로 지원됨에 따라 금리를 현재 2%에서 1%로 낮춰주거나 시에서 이차보전을 지원해 주고 대출상환 기간을 늘려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농업인프라 구축, 농산물 판로 개척,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공동사업 추진방안 논의 등 미래농업을 이끌어 나갈 좋은 의견과 정책제안이 이어졌다. 농업인들은 고민을 함께 해결하기 위한 자조모임을 읍면동 지역별로 결성하고 (가칭)청년농업인연합회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익산=장양원 기자

## 산단공 익산지사, 자동차부품 초광역 워크숍 개최

### 도내 기업에 미래 기술 소개·상생기회 제공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 익산지사는 6일~7일 양일간 경주에서 오토엔일렉트릭 미니클러스터(이하 MC) 회원 20여명과 강원권의 SLC(Safe Life Car) MC, 충청권의 산업소재부품MC, 메카트로닉스MC, 기계부품소재MC, 부산권의 부품소재MC, 울산권의 자동차그린기술MC, 생산기반MC 회원 80여명 등 총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부품 혁신연계망 구축 초광역 워크숍'을 개최한다.

본 행사는 최근 상용화되고 있는 전기자동차 및 점점 진화하고 있는 자

율주행자동차 등 미래의 자동차기술 동향을 전국 주요 자동차부품기업과 공유하는 연계망 구축을 통해 도내 기업에게 미래 기술을 소개하고,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첫째 날에는 각 지역별 대표 기업의 우수기술 및 지역별 특화사업에 대한 소개에 이어, 울산테크노파크 차세대 기술연구전문센터의 환경식 센터장을 초청하여 자율 주행 자동차 및 커넥트 카의 기술현황 및 세계 각국의 미래 자동차 개발 방향에 대한 강연을 듣고, 지역 간의 교류·만찬회를 가진

다.

둘째 날에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방문하여 회사현황 및 생산제품에 대한 소개와 점점 발전제품으로 변화하고 있는 자동차의 기술개발 현황에 설명을 듣고 이번엔 생산라인을 투어하고 자동화되고 지능화된 생산시스템을 투어한다.

산단공 익산지사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오토엔일렉트릭 및 융복합첨단소재 2개 미니클러스터(MC)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산학연관 네트워킹 및 행사를 지원하여 기술과 정보의 유입을 통해 기업경영의 활성화를 꾀하고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 '익산 Start-up 창업박람회' 오늘 열려

### 익산역 광장에서 이틀간 진행... 우수제품 박람회 등 진행

전북도를 대표하고 신성장동력의 핵심축인 스타트업 기업의 새로운 도약과 창업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익산 Start-up 창업박람회'가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익산역 광장에서 열린다.

원광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우수 아이디어 제품 전시 및 판매를 통해 창업가와 투자자 간에 상생의 장을 이루고, 지역

경제의 주역인 우수 스타트업 기업 간 교류 및 협력의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요행사로는 우수제품 박람회, 창업토크쇼, IR모의투자대회, 1화와 1기 창업업 데모데이 등이 진행되며, 창업상담과 함께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돼 있다.

백현기 원광대 창업지원단장은 "호

남의 관문인 KTX 익산역 방문객들에게 지역의 창업 분위기를 알리고, 우수제품을 홍보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시민과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원광대 창업지원단은 전북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 장애인, 군부대 등 다양한 계층의 창업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군내 1화와 1기 창업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창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 나들이족 위한 이색 가정간편식 인기

### 야외활동·홈파티·나들이 등서 다양하게 즐길 수 있어

가정간편식 시장이 진화하고 있다. 지역 별미부터 해외 이색 음식까지 편의성을 넘어 다양해진 소비자 취향을 저격하는 제품들이 쏟아져 출시되고 있다. 특히 가정간편식들은 불철을 맞아 야외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든든한 한끼 식사가 물론 홈파티나 나들이 간식 등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복잡한 조리과정 없이 간단히 데우기만 하면 색다른 요리를 즐길 수 있어 요리에 서툰 사람들도 누구나 볼 콧구멍에 걸 맞는 나들이 도시락과 캠핑요리를 뽑낼 수 있다.

꽃구경도 식후경, 가볍게 한 입으로 즐기는 아워홈 비프퀘사디아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는 벚꽃놀이 축제에는 거리에서도 쉽게 먹을 수 있는 간편식을 찾는 소비자가 많다. 아워홈은 야외에서도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정통 멕시코 비프퀘사디아를 출시했다. 여느 토피야와 달리 전자레인지 조리 후에도 눅눅해지지 않는 것이 특징이며, 오븐 조리 공정도 누구나 볼 콧구멍에 걸 맞는 나들이 도시락과 캠핑요리를 뽑낼 수 있다.

지역 별미를 간편하게 똑딱 하림 '춘천식 닭갈비'와 '인동식 찜닭'

닭고기 전문기업 (주)하림은 춘천의 대표 음식인 닭갈비를 가정간편식으로 구현해냈다. 하림 '춘천식 닭갈비'는 엄선한 국내산 닭다리살에 직접 개발한 양념소스를 마리네이드한 제품이다. 별다른 조리 과정 없이 제품을 프라이팬에 부어 약 3~4분간 익히는 것만으로 요리가 완성된다. 기호에 따라 각종 채소나 사리를 첨가하면 더욱 근사한 한끼를 완성할 수 있다.

간편한 식사를 원하는 캠핑족에게 안성맞춤, SPC 삼립 '그릭슈바이인 갈릭소시지 필라프'

가벼운 여행을 꿈꾸는 캠핑족에게는 편의성과 맛,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냉동볶음밥이 제격이다. SPC삼립의 '그릭슈바이인 갈릭소시지 필라프'는 서울 강남의 유명 맛집 그릭슈바이인 메즈커리이 매장에서 판매되는 인기 메뉴를 가정간편식으로 재해석한 제품이다. 그릭슈바이인 소시지와 국내산 마늘을 사용해 식감과 풍미가 살아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제조 후부터 도정한 국내산 쌀을 사용해 직화솥으로 밥을 지어 품질을 한층 업그레이드했다. 후라이팬에 3분 가량 볶아주면 남녀노소 누구나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든든한 한끼가 완성된다.

선선한 불비림 맞으며 이색적인 해외 요리를 안주 삼아 맥주 한 잔 청정원 '휘슬링룩 육즙가득 난자완스'

제법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야외 경치를 즐기며 시원한 맥주와 곁들여 먹을 수 있는 제품도 인기다. 청정원 '소리로 익히는 세계 가정식'이라는 컨셉으로 선보인 '휘슬링룩'은 가장 맛있는 상태로 조리가 완료되면 제품에서 휘슬 소리가 나 요리초보도 야외에서 실패 없이 품격 있는 요리를 완성할 수 있다. 특히 휘슬링룩의 '육즙가득 난자완스'는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곁들여 볶아 빛깔이 완자과 매콤한 굴소스가 조화를 이뤄 맥주 안주로 제격이다. 전자레인지에 3~4분 정도만 데워주면 된다.



## 군산시, '도 경관디자인 공모사업' 선정

### 예술의전당 테마가로 조성사업

군산시가 전라북도에서 주관하는 '2017 경관디자인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도내 7개 시군이 신청한 이번 공모사업에서 군산시는 '군산예술의전당 테마가로 조성사업'을 응모했으며 지난 3일 공모에 최종적으로 확정돼 7억4천만원의 사업비로 내년까지 경관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시에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대상지인 군산예술의전당 지하차도 옆 옹벽과 수송로 새들공원 옹벽, 군산예술의전당 앞 보행로에 고은 시인의 민인

보, 채만식의 소설 탁류 등 군산의 문화예술 콘텐츠를 집목하여 새로운 문화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어둡고 삭막한 보행로에 '별의 예방 친화성설계' 기법을 적용하여 이 지역에 대한 야간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과 지역 작가 등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들어 주민 참여형 경관사업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건축경관과정은 "경관디자인 사업으로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새로운 문화 공간을 창출하고 문화·관광 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해 군산시 300만 관광객 시대를 여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필곤 기자